

문화광장



홍정호 한국관악협회 제주지회장

15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한해 30대그룹의 자연인 총수를 대상으로 온라인 총정보량과 사회공헌 정보량을 발표했다. 2019년 '사회공헌' 정보량이 가장 많이 나타난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다. 총 9624건을 기록해 다른 총수들에 비해 6.6배 이상 높았다.

2018년 여름, Americans for the Arts(AFTA)와 Conference Board(CB)에서 실시한 미국 소·중·대기업들에 대한 예술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92%의 기업이

예술을 통한 변화

예술을 후원하고 있었으며, 예술후원 중 34%가 자선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기업의 수익대비 예술에 대한 후원은 소규모 기업들의 참여가 더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이 예술을 후원하는 이유는, 이익 추구의 기업이 가진 사회적 책임의 형태로 예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후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예술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예술 가치의 평가는 예술가의 철학적 사고와 구현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예술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은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국가 혹은 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예술가들이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해 상상하며 실행하게 도와 주는 것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들의 활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020년,

예술에 대한 제주기업의 사회공헌을 기대해 본다. 제주메세나협회와 함께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을 통한 변화(Arts for Change)'는 예술가의 역량강화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예술실천 기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예술을 통한 변화'의 목적과 과정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회구성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공감의 언어로 담아 내는 것이 첫걸음이다. 2015~2018년, 보스턴 뉴잉글랜드 예술 파운데이션(New England Foundation for the Arts)이 보스턴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기획 실행한 '창조도시(Creative City)' 시범 프로그램은 공공영역에서 비슷한 목적성 및 결과의 모델로 강력하고 다양한 예술적 표현력을 지원하며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

려하는 것과 예술가의 공공영역에 지원, 예술가와 지역 기관들 사이의 파트너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예술가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서귀포 시민과 예술가 그리고 행정의 협력이 문화 도시, 예술 도시의 구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일 것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보지식시스템을 소개한다. 2012년 오픈한 이 DB시스템은 문화예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술계 해외 동향 등 정부를 비롯한 각 영역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 분석, 공유,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는 '예술을 통한 변화'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감의 언어로 담겨져 있다.

열린마당

쓰레기통 속의 보물을 찾아라



박창훈 제주시 오라동주민센터

쓰레기통을 뒤지다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멀쩡한 물건들이 버려져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지나도 유효기간이 남은 제과류, 통조림류, 구형·소형전자제품 등이 버려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린다. 우리의 소비성을 논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버려진 쓰레기를 잘 활용하면 보물이 될 수 있다.

내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시절, 리사무소에는 흑백TV 1대가 있었다. 저녁엔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관람하던 때, 인젠가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 미국에서는 TV와 차들이 길가에 버려져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거짓말이라 생각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주변에도 TV,

냉장고, 자전거, 오토바이, 차들이 길가나 공터에 버려진 것을 자주 본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파괴는 물론, 정신적인 면에서도 해롭다는 어느 외국 학자가 쓴 책을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혹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한번쯤 재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리사이클링(Recycling)을 넘어 업사이클링(Upcycling)시대로 접어들었다. 주변에 많이 버려지는 현수막, 페타이어, 패트병 등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폐자원이 많다. 이를 간단한 방법으로 변신시켜 재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시대는 자원순환사회다.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 가능한 폐자원을 순환계로 되돌려서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후세에 양질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현 세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2년만에 아들 만난 아빠 심정은 어떨까"

고유정 재판 공판검사 울먹

○...20일 고유정 사건을 맡은 공판검사가 최후 진술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연을 소개하다 울먹.

이우환 제주지검 검사는 고유정의 범행 당일인 지난해 5월 25일 전 남편이 도내 한 놀이공원에서 아들을 만나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며 "2년만에 아들을 만난 아빠의 심정은 어떨까. 외락 끌어안을 것 같지만 아버지는 서서히 아들에게 다가간다"고 말하며 목이 메이는 듯 잠시 침묵.

또 이 검사는 숨진 의붓아들 사연을 소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토로. 이상민기자

양길현 예비후보 복당 신청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당내 예비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제주시갑 선거구에 무소속 양길현 예비후보가 복당을 신청하면서 귀추가 주목. 양 예비후보는 "이제는 제 정

책을 실현하는데 보다 더 부합하는 정당을 선택해 경선에 임하고자 한다"며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 전략공천지역 중 일부 선거구 경쟁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최종 공천자가 누가 될 지 관심. 오은지기자

입춘굿 사전 행사부터 열기

○...2020탐라국립춘궁이 이달 27일 입춘맞이 시민참여축원마당을 시작으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가운데 선착순으로 진행한 입춘동 만들기 참가자 접수가 일찌감치 마감되는 등 참여 열기.

축제 기간 마을거리 곳곳을 맡을 제주시 읍면동 민속보존회 공모에서도 지난해 18개 팀이 참가했다면 올해는 추자, 우도, 삼양등을 제외한 23개 민속보존회가 신청. 주관 단체인 제주민예총 측은 "시민들이 동원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고 설명. 전선희기자

사설

70년만 가족품으로 돌아간 4·3발굴유해

사건 발생 70년이 지났지만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제주4·3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지난 18일에는 2019년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통해 당시 행방불명 희생자 1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차디찬 땅속에 묻혀있던 유해 발굴을 통해 비로소 70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1949년 군법회의 사형수 5명과 1950년 예비검속 희생자 7명 등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서북쪽과 동북쪽에서 발굴된 유해입니다. 이번 추가 신원 확인으로 2018년까지 제주공항 등에서 발굴된 405구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모두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수백구에 이르는 유해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게다가 당시 정드르비행장(제주국제공항)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북부예비검속 희생자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흐르고 다디지만 억울한 희생자들의 유해를 찾고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지속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4·3유해발굴과 신원 확인은 유가족들의 고통과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는 길입니다. 동시에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한 치도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하면 다시 새로이 발의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큼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넘길 경우 도민적 분노와 반발은 불보듯 뻔합니다.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마지막까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서민 울리는 보이스포싱 속출 안타깝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고객 돈을 노리는 보이스포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이스포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포싱 범죄가 줄지 않고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제주에서 원격조정 앱을 이용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포싱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일 보이스포싱에 거금을 날렸습니다. 그 수법을 보면 속기 쉽습니다. A씨는 이날 발신번호가 찍힌 한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습니다. 문자 내용은 모 전자매장에서 결제했는데, 상품을 구매할 적이 없으면 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하라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산 적이 없는 A씨가 전화를 걸자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보이스포싱에 당한 것 같다"며 '스미싱 카드'란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권합니다. A씨가 앱을 깔자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의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를 구제해 주겠다"며 '픽서포트'란 앱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두 남성 모두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단이었습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휴대전화 원격조정 앱으로 이들은 이 앱을 이용해 A씨 명의로 총 34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제주에서 수천만원대 보이스포싱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습니다. 가짜이나 제주는 전국 17개 광역자치체 중 인구 대비 보이스포싱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보이스포싱에 당하는 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깁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포싱 피해는 1448건 184억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보이스포싱 피해예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금융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권할 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이 각별히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 고

김용필 아버지 광산김공 근식(향년 98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20일 08시 4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1월 21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월 22일(수요일)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명도암 선영

아 들 김용필 며느리 윤경숙
딸 김정인 사 위 문운호
손 자 김원재 외손자 문기탁
총 탁

※ 연락처 : 김용필 010-2002-0600
문운호 010-2698-1735

부 고

천주교인 밀양박씨 경순(베로니카·향년 60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20일 05시 3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1월 21일(화요일)
▶발인 및 장례미사: 2020년 1월 22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조천성당
▶장 지: 황사평 천주교 공원묘역

남 편 한상우 (안드레아)
아 들 한충훈 (에드워드)
딸 한성림 (마리앤나)
사 위 강용준 (대진 안드레아)
손 강민혁 (안바루)

※ 연락처 : 한상우 010-7683-6088
한충훈 010-4349-0907
한성림 010-2697-6077
강용준 010-3691-9992

부 고

이승훈(하경엔지니어링) 어머니 제주 고씨 창선(향년 85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18일 18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0년 1월 21일(화요일)
▶발인일시: 2020년 1월 22일(수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해안동 선영

아 들 이승훈 며느리 김현량
충훈 김선주
창훈 정은주
경훈 고정희
딸 이애숙 사 위 장영성
정숙 장유배
경숙 김동석

※ 연락처 :
이승훈 010-2073-2467 이애숙 010-9147-6579
이충훈 010-9148-7767 이정숙 010-4699-1687
이창훈 010-6690-1826 이경숙 010-7321-4324
이경훈 010-8502-182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신생(향년 88세)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월 21일

아 들 고도현
며느리 김영애
딸 고경자
사 위 현창오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포기

•성 명 : 망 문승준(1964. 11. 10생)
•최후주소 : 제주시 미라내길 199-6, 영1호(노형동)

상기자는 2019년 10월 16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월 15일 제주지방법원 2019년단103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 다 음 -

- 1. 광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미라내길 199-6, 영1호(노형동), 제주시 동광동4길 3, 3층(이도이동)

2020년 1월 2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문계현, 문수윤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망 황문화(1949. 7. 22 생)
•최후주소 : 제주시 중앙로22길 7-1(삼도아동)

상기자는 2019년 10월 1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월 15일 제주지방법원 2019년단103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 다 음 -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서귀포시 대정읍 무형중앙로 46-6, 제주시 동광동6길 33, 2층(이도이동) 법무사 강원형

2020년 1월 21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황영일

조직변경공고

본 영농조합법인은 2020년 1월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농업회사법인 현희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 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 법인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0년 1월 21일

현희 영농조합법인

서귀포시 표선면 서성일로 186-56
대표이사 장현용